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 ※ 송 영 / 찬양대
- ※ 영 광 송 / 1장
- ※ 성시교독 / 42.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셨음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이다.  
(다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65장
- 대표기도 / (1부) 윤진태 안수집사 (2부) 윤결태 장로
- 헌금봉헌 / 51장 (1절)
- 성경봉독 / 누가복음 7:11~17
-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 말 씀 / “슬픔가운데 찾아오신 생명의 주님”  
( The Lord of Life Who Comes to Us in Our Sorrow ) / 전종남 목사
- 찬 송 / 505장
- 교회소식 / 인도자
- ※ 파송노래 / 620장 (1절)
- ※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 찬 송 / 250장, 279장
- 기 도 / 우말순 권사
- 성경봉독 / 레위기 23:26~32
-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 말 씀 / “속죄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날”  
( Yom Kippur: A Day to Humble Ourselves Before God ) / 전종남 목사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권유진 목사

- 찬 송 / 265장, 288장
- 성경봉독 / 다니엘 6:1~10
- 말 씀 /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 Daniel Gave Thanks to His God. ) / 권유진 목사
- 주일~금 새벽 5시
- 저녁 8시 40분

호세아 강해 / 전종남 목사  
인도 / 심상현 목사

| 다음 주간 기도 |        |        | 예배 위원 |     |                 |
|----------|--------|--------|-------|-----|-----------------|
| 주일 1부    | 주일 2부  | 주일 오후  | 10월   | 1부  | 2부              |
| 이기숙 집사   | 이상혁 장로 | 연윤희 권사 | 안내    | 강현주 | 이대기 박선진 김정순     |
|          |        |        | 헌금    | 김신영 | 유병용 황하연 김영화 최인숙 |

| 헌금자 명단 (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 |                                                                                                                                    |
|---------------------------------------------|------------------------------------------------------------------------------------------------------------------------------------|
| 십 일 조                                       |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정순 김춘예 남정옥 연윤희 최인숙 최차순<br>홍우표(윤명란)                                                                                   |
| 감사헌금                                        |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남정옥 문상필-2건 심상현<br>엄상희 유병용(황하연)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br>이상혁(송미숙) 이소희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인숙 홍우표(윤명란) |
| 선교헌금                                        | 전종남(최경애) 김경희 김성학(류윤영) 김순천(연윤희)-2건 김형문(신승희)<br>남정옥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지난주일 주보 누락: 2여 3남                                      |
| 구제헌금                                        | 전종남(최경애) 남정옥 *구역헌금: 1, 3, 4, 9구역 *부서헌금: 유초-중고                                                                                      |
| 교육헌금                                        | 전종남(최경애) 김순천(연윤희) 박주해 최인숙 최차순                                                                                                      |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10.11.)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눅7:1-10)**  
전 종 남 목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9절)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 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2-5절).**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당시 좋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백부장은 종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을 사랑 하여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 고백되고,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도 가족과 성도들을 돌아 보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므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2.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6-7절).**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 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공로나 자격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전 15:10).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3.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권위를 신뢰합니다(7-10절).**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고, 종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됩시다. 아멘.